

문화방송 노조특보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 공정방송 파괴 · 노조 탄압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측 위법 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언론노조 MBC본부는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공정방송 가치를 훼손한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어제(1일)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1장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서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된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업주와 대표자, 위법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사측의 노조 파괴가 극심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갑을오토텍'은 지난 2015년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가 재판 과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연국위원장 등조합 집행부는 어제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김연국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의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중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여 왔다"며 "제출한 신청서는 사실상 '노조법 위반·노조탄압 종합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는 "MBC에 부당

노동행위 혐의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일부만 신청서에 담았는데도 53쪽에 달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건수가 너무 많은데다 회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태영 팀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해 특별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감독관이 노동경찰로서 기능하도록 실질 수사권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계기로 MBC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겸 · 고영주 퇴진행동 선언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벌써 9년이다. <PD수첩> PD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들어오고 <뉴스데스크>의 간판 앵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강제 하차했다. 곧이어 청와대에서 '조인트 카인'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언론자유는 질식했고 MBC는 추락했다.

우리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2010년 39일 파업, 2012년 170일 총파업으로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다. 한국 언론 역사상 가장 악랄한 탄압이 자행됐다. 10명이 해고됐다. 200명이 징계받고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다. 저들은 우리에게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살아 남았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김장겸 사장은 암흑 시대 9년의 한 가운데에서 보도국을 장악했다.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유례없는 수직 상승이었다. 2012년 대선 편파 왜곡보도, 2014년 세월호 유족 모욕과 왜곡보도,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축소 몰타기 보도, 2017년 대선 최악의 편파 왜곡 보도까지. 김장겸 사장은 이 모든 사태의 현장을 지휘한 직접적 책임자이다. 그 김장겸의 뒤를 봐주며 MBC 파괴를 합작한 자가 고영주 이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MBC 암흑시대 9년을 끝내겠다. 헌법 21조 언론자유를 회복하겠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되찾겠다. MBC는 지금도 파업 중이다. 7년간 이어진 이 기나긴 파업을 이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 암투병 중인 해직 기자도, 쫓겨난 PD들도, 사라진 아나운서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 승리를 향해 우리는 김장겸, 고영주 퇴진을 위한 강력한 마지막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언론자유를 염원하는 국민과 시청자가 우리 뒤에 있다.



MBC 파괴범들, **검찰** 칼날 앞에 서다

‘안광한·윤길용 게이트’ 고발인 조사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회삿돈으로 관광을 하거나 자신의 인사권자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광한 전 사장과 윤길용 MBCNET 사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MBC를 국민의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MBC 공대위)의 공동대표인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MBC 공대위는 지난달 27일 안 전 사장과 윤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안 전 사장은 MBC플러스 사장 재임 시절 해외 출장비를 개인 관광에 유용했고, 윤 사장은 울산 MBC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사권자인 MBC 임원과 방문진 이사들에게 회사 공금을 유용해 값비싼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한 혐의이다. 윤 사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장겸 사장과 안 전 사장,



안광한



윤길용



고영주



김원배

백종문 부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도 함께 고발됐다.

‘학교 비리’ 김원배 이사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목원대 총장 재임 시절의 각종 비위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원배 방문진 이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이사는 목원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소유 교육 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학법인 이사와 함께 수십억 원대의 ‘매각 수수료’를 받으

려 한 정황이 담긴 계약서가 폭로돼 논란이 일어났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 출석한 목원대 노조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가 ‘(관련 사건이) 70% 진행됐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고영주 이사장도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김장겸 OUT!” 릴레이 성명 봇물

‘김장겸 퇴진’을 외치는 MBC 구성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선봉은 지난달 25일 콘텐츠제작국 PD들이었다. PD 29명은 ‘탄핵’ 서류를 불방시키고 ‘6.10항쟁’ 관련 서류 제작을 중단시킨 김장겸 경영진이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제작 자율성을 훼손시켰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취재기자들과 영상기자들의 기명 성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9일 보도부문 35기와 40기 기자들의 기명 성명을 시작으로 매일 구성원들의 이름을 건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들은 MBC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19대 대선 보도를 거치면서 뉴스 사유화, 불공정 편파 보도, 왜곡 보도의 정점을 찍고 있고,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MBC의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뉴스를 망치고 정치부장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한 김장겸 사장이 이 모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자임을 명시했다.

개인적으로 성명을 올린 조합원을 포함해 어제(1일)까지 90여명의 보도부문 구성원들이 속속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영상기자회도 “김장겸 당신이 떠나고 MBC 뉴스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릴레이 성명 열기는 전사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다른 부문 구성원들도, 최고참부터 젊은 구성원들까지 계속해서 뜻을 모으고 있다. ‘김장겸 퇴진’은 공영방송 MBC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안광한 꼬리 밟히다!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 인터뷰 요청에 줄행랑

안광한 전 사장의 ‘황제 전관예우’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다. 몰락한 공영방송의 참상을 고발하는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 중인 해직PD 최승호 감독은 최근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사무용 빌딩에서 안 전 사장을 찾아냈다. 그러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최 감독을 피해 그는 꿈꾸니를 빼는데 급급했다. 안 전 사장은 지난 2월 퇴임 이후 회사로부터 ‘황제 전관예우’를 제공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문제의 사무실은 사측이 자문 계약의 명목으로 안 전 사장에게 제공한 것이다.

영화 <공범자들>은 포털 ‘다음’에서 오는 25일까지 스토리펀딩이 진행 중이다. 안 전 사장의 ‘도주극’을 담은 트레일러는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